

혈세 쏟아부어 모셔와도 지역 경제에 보탬 안 돼 유커 유치 ‘딜레마’

〈중국인 관광객〉

전세기·크루즈 장려금 지원
덤핑 관광에 적지만 쌓여
쇼품 수익마저 면세점으로

저가 덤핑 여행상품이 범람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여행사 인센티브는 물론 전세기 및 비정기 노선에 대한 운항장려금, 크루즈 기항 장려금 등 ‘혈세’까지 내걸며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보탬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쇼품 수익마저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독점하다시피하면서 지역상권은 ‘지붕’만 쳐다보는 셈이다.

3월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해외관광객 유치 규모를 지난해 3만5000명에서 2만명 늘린 5만5000명으로 정하고 인센티브로 1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해외관광객 유치 목표치는 순수하게 전세기, 비정기노선, 크루즈 등을 통해 전남도를 관광하는 해외여행객으로, 단순 경유 여행객은 제외된 수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상비(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판촉장려비), 광고비, 모객촉진장려금, 지역특화상품(선·골프, 웨딩·뷰티·인연지·농어촌체험관광) 등 유치 장려금을 주는 한편 전세기 및 비정기

노선에 대해서는 대당 최대 500만원, 크루즈는 대당 최대 20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기업관광, 단체관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건넬 방침이다.

문제는 해외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관광객의 ‘지역기여도’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해외관광객 1인당 여행사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각각 중국은 3만원, 그 외 국가는 2만5000원 등 차별을 둘만큼 중국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2박3일, 3박4일 상품을 최저 10만원대에서 최대 40만원 정도의 덤핑 가격에 찾으면서, 관광객을 유치할수록 여행사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 관광객들이 쇼품 장소로 지역에는 면세점을 선호하면서, 지역 내 상점, 전통시장, 백화점·마트 등은 중국 관광객이 늘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선거구 확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도

국회는 전날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관련 기사 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자마자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자 전원 퇴장했으며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확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지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박지경기자jpkpark@kwangju.co.kr

총선 D-40 국민의당·더민주 ‘광주 쟁탈전’ 치열



국민의당에 합류한 박지원(목포) 의원이 3일 오후 광주 광산구에서 열린 권은희(광주 광산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권 의원·김동철 의원, 예비후보자들과 손을 붙잡고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운데)가 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0대 총선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발끈한 안철수 “비겁한 정치 공작”

야권통합 제안 김종인 더민주 대표 강력 비판
박지원 “총선 전 단일화 총선 후 대통합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통합 제안을 ‘정치 공작’이라며 정면으로 거부했다.

안 대표는 이날 부산여성회관에서 열린 ‘부산을 바꾼다! 국민콘서트’에서 김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 “말 그대로 제안이 아니고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격렬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어 “야권통합 제안(이)필리버스터 중단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 천정배 공동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 영입 인사를 이른바 ‘자작공천’을 한 게 불과 사흘 전”이라며 “한 손으로 협박하고 다른 손으로 회유하는 것을 뭐라 하나. 비겁한 공작이라 한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우뚝 서는 것을 저지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안철수만 빼고 다 받겠다는 오만한 말까지 서슴치 않는다”며 “이런 게 막 말정지, 갑질정지, 낚음정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김종인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니다. 임시 사장”이라며 “당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총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패권주의, 배타주의 만년 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은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수도권 연대는 필요하나 친노 청산 등의 가시적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당 대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제안은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

하다”며 “더민주가 수도권 연대의 진정성이라고 확보하려면 친노 패권주의 청산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라도 해서 총선에 임하고, 총선 후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낮은 지지율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안을 외면하지 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6발 발사...대북제재 무력시위

북한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오늘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거리 발사체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300mm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안보리는 이날 새벽(뉴욕 현지시간 2일 오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탈러화와 물품의 수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 금지도 포함하는 이번 제재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총선 표밭점검-영암·무안·신안 ▶5면



신 팔도유람-영덕 대개 축제 ▶18면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영남삼성 차량 렌탈 및 보험
• E 200 1.99tcc, 1.633kg, 7G-TRONIC PLUS, 배관연비 12.0km/ℓ(도시연비) 10.5km/ℓ, 고속도로연비 14.6km/ℓ, 39년, 배관CO₂ 배출량 145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배관연비 14.1km/ℓ(도시연비) 12.4km/ℓ, 고속도로연비 17.0km/ℓ, 29년, 배관CO₂ 배출량 140g/km
• E 300 3.49tcc, 7G-TRONIC PLUS, 배관연비 9.7km/ℓ(도시연비) 8.4km/ℓ, 고속도로연비 11.6km/ℓ, 49년, 배관CO₂ 배출량 113g/km
• E 300 4MATIC 3.49tcc, 1.800kg, 7G-TRONIC PLUS, 배관연비 9.1km/ℓ(도시연비) 8.0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59년, 배관CO₂ 배출량 196g/km
• E 350 BlueTEC 4MATIC 2.987cc, 2.045kg, 7G-TRONIC PLUS, 배관연비 12.6km/ℓ(도시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4.7km/ℓ, 39년, 배관CO₂ 배출량 153g/km
• E 400 4MATIC 2.99tcc, 1.933kg, 7G-TRONIC PLUS, 배관연비 9.3km/ℓ(도시연비) 8.1km/ℓ, 고속도로연비 11.2km/ℓ, 59년, 배관CO₂ 배출량 190g/km
• E 63 AMG 4MATIC 5.46tcc, 2.0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배관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3km/ℓ, 59년, 배관CO₂ 배출량 230g/km
※ 본 연비는 JIS규격에 의한 연비로서 도심상행, 교외상행, 지방상행 및 혼합상행 등에 따라 상수별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